

(八) 著述의 校訂이 正確한 것.

高麗藏經은 世上에서 至寶라 하는 것은 勿論 板木의 眞價가 他에 比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나 累次 嚴重히 校訂하여 一字도 錯誤가 無함으로 眞正한 高價를 保有함에 따라 安心하여 朗讀할 수 있는 줄 안다. 均如師의 著述은 該高麗藏의 補板에 插入된 것임으로 如斯한 眞價를 가지게 된 줄 안다.

(九) 著述 全般에 亶하여 當時 方言을 削除한 것. 이것은 言語學上으로 보아 甚히 遺憾으로 생각하는 바이다. 本來는 方言이 附한 대로 傳했스나 天其及弟子等이 改纂할 때에 削除한 것에 甚因한 것이다. 萬若 天其等이 方言이 附한 原本대로 後世에 傳했다면 錦上添花의 格으로 오늘날 天其의 貢獻이 一層 더 큰 것을 推測할 수 있다. 著述 全般에 亶하여 方言이 削해졌스나 다만 그의 影子만 보인 것이다 음파자치 一箇所에 止한 附하여 있다.

或有如 佛性 闕提人 隱有 亦善根人 無如好 或有如 佛性 善根人 隱有 亦闕提人 無如好等云也(教三左) 이와 같치 原本 全部가 漢文의 助詞로써 吏讀文이 插入된 것임을 推測할 수 있다.

(一〇) 著述의 文獻의 價値. 此에 對한 例는 左와 如히 比較하여 보면 此均如師의 著述에 對한 眞價를 窺知할 수 있다.

續藏——因緣者, 隨隨俗義別(二九八, 右, 上)

正藏——因緣者, 隨隨俗義別(四九五卷, 七一五, 上)

均如著——因緣者, 隨隨俗義別(教, 九, 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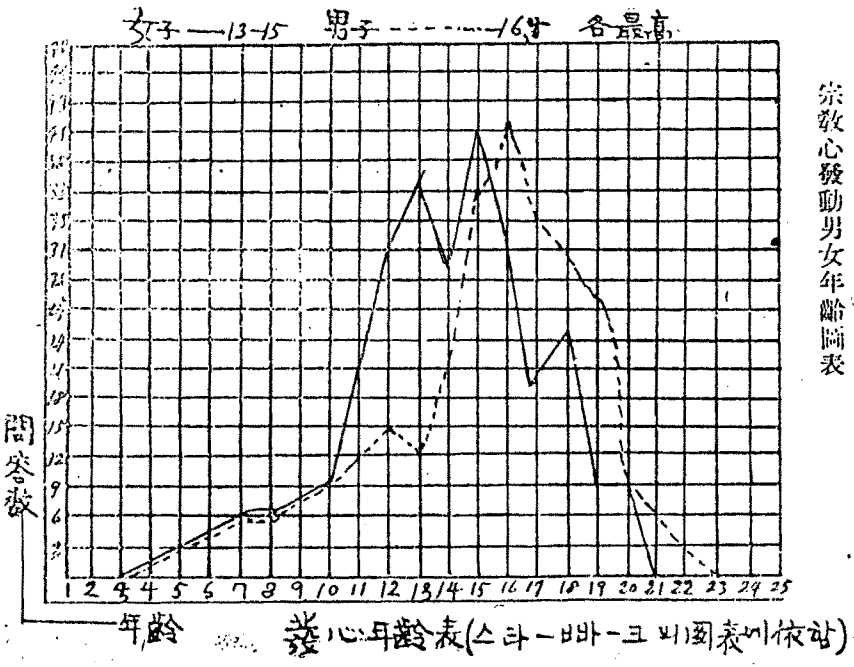
續藏經上欄外에 「正隨一作相」, 正藏下欄外에 「S隨二相」, 「S隨一」이라고 記入되어 있다.

右文句는 義湖師의 「乘法界闡章」에 있는 文句로써 如斯히 正續兩藏의 編輯者가 苦心千萬이라고 正路를 闡發한 것을 推測할 수 있다.

以上에 記述한 것은 著述自體에 對한 것이나 다음은 保存處를 略述코자 한다. 均如師의 著述은 現今 漢藏中

에든 大正新修大藏經이나 續藏及支那藏經等 二藏經中에도 插入되지 않았스나 오죽 高麗藏經中에 國用補板中에 들어 있는 것이다. 그림으로 高麗板을 印刷保管하는 外에는 어디 볼 수 있는 稀貴한 寶物이다. 따라서 世上에서 均如師의 華嚴學이나 該人格을 아는 이가 드문 것이다. 近世 朝鮮 佛敎史를 追慕하는 이로 均如師를 아는 이나 均如師의 傳을 수박 것 한 키 처럼만 보았을 것이다. 實로 朝鮮 華嚴學의 特色을 알고 朝鮮 佛敎의 古蹟한 文化를 探知코자 하면 此均如師의 著述에 依차 안출수 있는 줄 안다. 이제 此 珍貴한 朝鮮 佛敎 資料의 所在地를 紹介하여 보면 左와 如함.

- (一) 金剛山正陽寺 全部
- (二) 雪嶽山 全部?
- (三) 五臺山 同
- (四) 通度寺 一部
- (五) 松廣寺 同
- (六) 海印寺 全部(板木外에)
- (七) 普賢寺 同
- (八) 成大圖書館 同
- (九) 東京增上寺 同
- (一〇) 滿洲國皇室 同



- (一一) 崔南善氏 全部(板木外)
- (一二) 高橋博士 同
- (一三) 大塚德城氏 ?
- (一四) 筆者 全部

但均如師著述中一乘法界圖記는 上中下三冊中에 現存한 것이니 上卷一冊뿐이니 元來板木은 五里霧中에 在하나 原本一冊은 海印寺圖書館에 崔英煥氏特志로 保管되어 있다. 寫本은 崔英煥氏, 石井教道筆者等이 各一冊式保存하여 있다. 或은 坂戶侃氏도 所有한 것이未詳하다. 斷片的으로는 大正新修大藏經第四十五卷諸宗部二(三)法界圖記叢錄中에五六個處에 記載되어 있다.

各 論

(一) 釋教分記圓通鈔

此十卷은 題名이 明示하는 것과 같이 教分記即五教章을 解釋한 것으로서 (嚴密히 말하면 教分記라면 五教章과 所詮章義理章을 포함) 法藏의 教分記를 祖述한 것이니 現存한 師의 著述中에는 最多量은 古領하고 있다. 此는 法藏의 華嚴教學을 徹底하하는 一方에 當時外자의 新羅로부터 高麗時代外지에 至하기까지 諸師의 說을 引用하고 支那及印度의 諸師說外지溯及하여 一說도 漏落치 아니한點은 傳記後席中에 記載되어 있는 左記外如하다.

前佛已說 後佛未與 世眼漸昏 法輪中轍 師能傑出 助揚玄化 神道瑞應 隨緣通示於塵沙
 矣호로 教分記釋板木에 對하여 一考察을 試하고자 한다. 此教分記釋第十卷의 板木이 二重으로 되어 있다. 其一是 그書體로 부터 말하면 다른 板木과 全然一致한 書體로 彫刻되어 있고 其一是 全然他板木과 書體로 別로 한 板木이니 此는 如何하如此重復을 生케 되는 가하면 李朝太宗乙酉五年(西紀一四〇五)年에 首座沖

玄이 高麗藏經板木을 檢閱한 結果 前記一枚가 不足되어 있었다. 그림으로 此를 補充키 爲하여 此教分記釋第十卷第十張一張을 彫刻하여 補充시킨 것이다. 此를 彫刻하면서 그輪廓은 正에 다. 다음과 같이 陰刻하여 該補充시킨 理由를 說明하여 보았다. 此記事가 現今高麗板이 海印寺에 移安된 年代를 證明하고 있는 一大重要證據가 되어 있다.

丁丑出陸時此闕失與知識道元同願開板入工乙酉十月日首座沖玄
 如斯히 別體로 彫刻補充시킨 後에 前記遺失된 板木一張이 何人의 손을 經했는지 發見되었으므로 如此二重의 板木이 存在하게 되었다. 그러면 丁丑年은 何丁丑年을 指示한 인냐 하면 李太祖五年(西紀一三九七)의 로써 江華島禪源寺에 安置했던 經板을 支天寺(寺는 一云社)에 移安하였다가 更次同六年으로부터 八年間 海印寺에 移安한 것이다. 此記事와 恰似한 記事가 또한 朝鮮歷代實錄에 記載되었으니 다음과 같다.

李太祖七年戊寅五月丙辰幸龍山江大藏經輪 自江華禪源寺戊午兩令隊長隊副二千人輪經于支天寺
 此中에 李太祖七年戊寅은 六年의 錯誤인 것이 分明하다. 이 江華島로부터 支天寺에 移安한 年代에 對하여는 여러가지 異說이 있으나 李太祖五年(丁丑)으로 부터 시작하여 그翌年五月即同六年五月外지 移安되었다. 今年이 戊寅年임으로 此를 逆算하면 距今五百四十一年前丁丑年에 支天寺에 支天寺로부터 移安을 始作하였던 것을 丁丑히 算할 수 있었다.

(二) 華嚴經三寶章圓通記

此記亦是法藏의 華嚴經明法品內立三寶章을 釋한 것으로서 그內容을 一瞥하면

1. 三寶章釋文
2. 流轉章釋文
3. 法界緣起章釋文
4. 圓音章釋文
5. 法身章釋文

6. 十世章釋文
 7. 玄義章釋文
- 此記는 他書에 比하여 二大特色을 表示하였스니 其一은 各章마다 該章을 釋하기 前에 法藏의 等諸章의 所設한 理由及 該順序 所定을 明白히 說明하여 있고 其二는 左記 十門을 揭載하여 第一門으로 부 第十門까지 純全히 自己學說을 主張한 것이요 第十一門만은 法界緣起章을 解釋하여 있다.

1. 本法門順淺深決
2. 同體異體得名決
3. 法性門中同異決
4. 本法錢數多小決
5. 能應所應同體決
6. 所應是九是十決
7. 同體一一種種決
8. 同體事非理理決
9. 雜段問答現義決
10. 隨文科釋現示決

(三) 釋華嚴旨歸章圓通鈔

此鈔示是法藏의 華嚴旨歸章을 釋한 것으로서 그 誠語에 於 잇는 것과 과 大願을 發하여 板木을 刻하였다. 即 江花京十七年戊申歲 於 東京社 請諸德結 安居(中略)願承此因 和上及法界衆生同入華嚴普圓法界耳. 이다. 此記事를 推究하여 보면 多數의 손을 經하여 現在 高麗藏經中에 入케 된 것을 知할 수 있다. 全體의 體裁 文字의 鄭重한 것이나 여러 點을 詳考하여 보면 他本에 比하여 持하 鄭重한 態度로 刻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세 此鈔의 起源以後 現今 海印寺板中에 入藏되 기까지의 年代及 諸事項에 對하여 그 年代順으로 表解하면 다

順年代	種別	高麗	干支	支那	西紀	均如入	寺院別	關係者
(一)	施講	光宗十四年以後	辛亥	宋 乾德元年	九七五		歸法寺	均如
(二)	入藏	成宗六年三月三日 癸亥	丁亥	宋 雍熙四年	九七九		均如	此項依高麗史及 均如傳
(三)	古搜	高宗二十一年	甲午	南宋 紹平元年	一一三六		開泰寺	天其
(四)	編纂	江花京十七年 (高宗三十五年)	戊甲	南宋 淳祐八年	一一三六		東京社	天其弟子
(五)	淨彫	高宗三十八年	辛亥	淳祐十一年	一一三九		禪源社?	天其弟子
(六)	入藏	高宗三十八年 五月 九月	辛亥	淳祐十一年	一一三九		禪源社	天其弟子

(四) 十句章圖通記

前記三種은 모다 法藏의 著述을 解釋한 것이나 此記 一種만은 智儼의 華嚴經에 對한 觀點을 解釋한 것으로서 다음에 記한 法界圖記와 同지 義湘의 華嚴宗에 對하여 代의 法孫이 解釋한 傳統의 著述이다. 이세 均如師以前부터 均如師까지 此十句章을 解釋한 諸師 順次 表記하면 다음과 같다. (但均如師의 此等著作에 對한 肯定한 것 限함)

- (1) 法融釋 均如師의 直接資料를 삼은 것.
 - (2) 梵體釋 均如師가 肯定은 하나 未見其文이라 한 것.
 - (3) 融冊釋 均如師의 直接參考資料를 삼은 것.
 - (4) 均如釋 現存分.
- 다음에 十句章의 書籍存在에 對하여 均如師時代 또는 그 前外지라도 詳考하여 보면 均如師가 此記 最初에 다 음과 같지 記載하였다.

